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2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빌라네키 캄피오(Villa Necchi Campiglio)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석희, 노도희, 김길리, 최민정, 이소연. /뉴시스

한국, 금 3개 쾌거에도 톱10 불발... 아쉬움속 희망 봤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강세
스노보드는 예상 밖 선전
빙속·컬링·피겨 등은 빈손

한국 선수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절반의 성공만 거
뒀다.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톱10을 목표로
했지만, 금메달 3개만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2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
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강호’ 노르웨이가 역대 단일 동계 올림
픽 최다 금메달, 총 메달 개수 등 각종 역

사를 새로 쓰며 2014년 소치 대회(금11·은
6·동10)부터 2018 평창(금14·은14·동11),
2022 베이징(금16·은8·동13)에 이어 4회
연속 동계올림픽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톱10이었는데, 금메달 3개만 이
뤘다.

2개 이상의 금메달을 점쳤던 쇼트트랙
에선 예상대로 금메달 2개를 땀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김길리(성남
시청)가 우승한 데 이어, 김길리를 포함해
최민정(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
석희(서울시청)로 꾸려진 대표팀이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기에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더했
다. 1개 이상의 메달을 꾀했던 실상 종목
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최가은(세화여고)이 지난 13일 이탈리
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
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우승이 나
오는 순간이었다.
최가은은 1, 2차 시기에서는 실패했지
만, 아픔을 딛고 일어난 3차 시기에서 완
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각본 없는 드라마’
를 써냈다.

앞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
결(하이원·은메달),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북고·동메달) 등도 힘을 보였다.
이로써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22 베이
징 올림픽 때 기록한 금메달 2개, 은메달 5
개, 동메달 2개의 종합 14위 성적을 뛰어
넘었지만, 톱10은 달성하지 못했다.

다행히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
들이 주축으로 메달이 나왔다는 점에서 밝
은 미래를 기대케 했다.
예상 밖 종목이었던 실상에서 다수 메
달이 나온 것도 기대 요소였다.

한국은 2018 평창 대회 이상호(넥센원
가드)가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기록한 은
메달이 한국 스키·스노보드의 유일한 메
달이었다.
다행히 이번 대회에서는 스노보드에서
3개의 메달이 나왔다.
첫 금메달과 최초의 멀티 메달 등 새 역
사가 쓰였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강세를 이어
가기도 했다. 최근 상승세를 그린 네덜란
드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만, 저력을 과시했다.
2004년생으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막
내인 김길리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
(여자 1000m)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유일한 2관왕이 됐다.

또 여자 1500m에서 은메달 등을 딴 최
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메달 7개를
완성했다.
하계올림픽의 진종오(사격·금4 은2)와



유승은이 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시상대에 올라 동메달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고교생 유승은은 결선에서 171.00점을 기록해 한국 스노보드 사상 처음으로 빅에어 종목 메달을 수확했다. /뉴시스

김수녕(양궁·금4 은1 동1), 동계올림픽의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금2 은3 동1)이
보유하고 있던 메달 합계 6개의 기록을 넘
어섰다.
남자 쇼트트랙도 밝은 미래를 예고했
다.

남자 1000m에서 ‘막내’ 임종연(고양시
청)이 동메달을 땀고, 황대현(강원도청)도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목 마지막 날에는 남자 5000m 계주
에서는 임종연, 황대현을 비롯해 이진민
(성남시청), 이준서(경기도청), 신동민(화
성시청) 등이 은메달을 합작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메달은 나오지 않
았지만 한국 역대 최고 순위가 나왔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총
점 273.92점을 받아 한국의 이 종목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동메달을 거머쥔 사토 슌(일본)이 기록
한 274.90점과 불과 0.98점 차밖에 나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가은은 한국 실상 종목 1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는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다. /뉴시스



1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 차준환 선수 가 연기를 마치고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않았다.
여자 싱글에서는 이해인(고려대)이 총
점 210.56점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아(세화여고)는 총점 206.68점으로
11위에 자리했다. 다만 또 다른 효자 종목
이었던 스피드스케이팅은 이번 대회를 빈
손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빙속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지 못

한 건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무
려 24년 만이다. 남녀 단거리 간판 김준호
(강원도청·남자 500m 12위), 김민선(의정
부시청·여자 500m 14위), 이나현(한국체
대·여자 500m 10위), 그리고 남녀 메스
타르트에서 정재원(5위)과 박지우(이상 강원
도청·14위)에게 메달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키커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